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0호 [무계 제26224호] 주제 107 (2018)년 12월 16일 (일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었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훌륭히 전진시키는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대성구역과 파도데로 노동자김정은은 청년학생 618건설돌격대원들을 성의있게 지원하여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에 동원되어 위대한 조국을 세우기 위한 선진적분자로서 근로자로서는 물론, 생산성, 책임성, 정통성, 인공적으로 노동자 리해관은 많은 분자들도 기증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돌격대원들이 력신제2인민병원의 의사

장편아, 승려자 등자전 합기업소 노동자 박명환도 농장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건설의 대면형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벽안 솔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합동시공을 위하여 49인민군 장혜숙, 평천구역 북성2동 18인민군 김상준은 온 가정의 지성이 어린 많은 분자들을 조국의 만년제후를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언제조류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불멸의 혁명업적 천만년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

### 절세위인들의 동상이 전국각지에 정중히 모셔지고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들이 훌륭히 개건되었으며 수많은 단위에 혁명사적교양실이 새로 꾸려졌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 강국념을 빛나는 헌신과 불타오르는 열정을 위하여 수평년월에서 개척하시고 승려적으로 전진시켜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천수님의 령도따라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열의같은 충정의 뜨거운 열의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평년월을 위하여 장군님의 생생한 넋을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로 대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평년월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애국열의가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수평년월의 동상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신것은 위대한 수평년월에서 개척하시고 승려적으로 전진시켜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천수님의 령도따라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열의같은 충정의 뜨거운 열의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평년월을 위하여 장군님의 생생한 넋을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로 대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평년월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애국열의가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수평년월의 동상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신것은 위대한 수평년월에서 개척하시고 승려적으로 전진시켜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천수님의 령도따라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열의같은 충정의 뜨거운 열의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평년월을 위하여 장군님의 생생한 넋을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로 대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평년월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애국열의가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 희세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 국제사회계의 목소리

백혈병의 신병과 의지로 사회주의수호를 승려적으로 이끄시어 우리 조국을 강위력한 자주성의 성소로 빛내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하고있다. 우크라이나 리보브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시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조건을 수호하기 위한 선군혁명도들의 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였으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세계인민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신 그이의 업적을 찬양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디언신문 《뉴틀리 타임스》

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탁월한 지능이 시다. 1990년대 조선반도위국기대 세계는 그이께서 지나신 병장으로서의 무비의 담력과 배양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적 사회주의정책적방향을 정립하시고 조선의 사회주의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판대성구루바 부책임자,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제협력회의 서기장은 희세의 선군령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있는 시련의 시기 선군의 보령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강국건설의 혼돈한 탐모를 마멸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시대와 역사에 살아올리신

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리고 인민군부대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조국의 휘황한 비례를 내다보시어 그를 위한 길을 위임없이 걸으신 여가운데 그의 특출한 위인적품격이 있다. 스위스조선연구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 조 공동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령도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대적과도 싸워 승리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었다.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존엄해지는것은 그이의 선군령도업적이 있었기때문이다. 탁월한 선군령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드린다. 【조선중앙통신】

## 애민헌신의 성스러운 길에 아로새겨진 위인전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인민사랑의 혁명일화들을 남기시었다

잊을수 없는 12월의 날과 날을 이어가는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한 절결한 그리움에 넘쳐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강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이인위전설을 과우명으로 삼으시고 눈비내리는 날에나 깊은 밤, 이문세벽에나 인민을 찾아 길고요인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령정에는 언제나 인민들과 고택을 함께 하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혁명일화들이 수없이 아로새겨져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희생과 더불어 빛나는 혁명일화들은 력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위인전설, 인민사랑의 혁명실록으로 세대를 세기대를 이어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고 물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을 것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며 오직 《위대한》이라는 호칭에만 부응할수 있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관은

그이께서 남기신 혁명일화들에 뜨겁게 여겨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어머니처럼》, 《618자유의 꽃》, 《우리의 노래》, 《한가마담과 민가마담》, 《애민대행그림》으로 전해지고있는 혁명일화들은 인민들이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가지라도 해놓는데서 막을 찾은 참된 행복, 인민들과 한가마담을 먹으며 후대의 인민이로 하여금의 생활을 따뜻이 품어주는 어머니가 되도록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새겨주고있다. 온 나라 인민을 한몸에 안아 운명을 풀까지 보살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의 세계를 보여주는 혁명일화들도 태어났다. 주체64(1975)년 2월 70일 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혁신자, 공로자들에게 크나큰 인민을 인격적으로 성원한 방승원과 예술인들의 삶에 가장 값높이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광복정지, 인격정치를 우리 인민들은 《그림이 읊는다》와 《민을 100%》, 《아들이 받은 훈장》, 《음악지휘자의 영성》 등의 혁명일화들로 전하며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그 사명, 그 믿음속에 우리 인민은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간직하고 류에없는 고난의

행군, 강령전투에 일심단정의 사랑한 력사를 승수하였다. 위대한 수평년월에서 말기고 가진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전진한 전격적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철의 의지와 초인적인 정력으로 전진시달의 힘찬한 초정력을 걸으시며 수많은 혁명일화들을 남기시었다. 색다른 애민부기 마음에서 이어가신 정에는 흰눈덮인 다박출초소고과 눈비를 맞으며 인민의 생활, 오성산의 갈바랑길,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교과 기계등을 높은 운양의 구대교도 있었다. 그 누가 내 마음 불라워도 불라워도도 희망이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시며 해져가신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로고가 《미남의 불꽃 노래》와 《모든 날》, 《전선동부 351고지에서》, 《목감과 배기담》, 《김남 한도막》, 《미남로동동계급의 정신력》, 《CNC에 비친 위인의 모습》을 비롯한 혁명일화들에 이어져 있다.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지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고택을 함께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다. 력사의 이 길에서 태어난

##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 로씨야 신분들 특집

《인민의 령도자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편에 게재하였다. 신분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동지는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힘에

의지하여 나라를 이끄신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선성

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위임없이 걸으시게 할 갈수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의 의미를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그 실천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7월 초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회고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위원들로 최수복,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와 산하조직 인공들이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

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문화와 산하조직들에서 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행사

###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7월 초 즈음하여 리비아에서 회고모임이, 쓰르비아와 브라질에서는 장원회가, 베네수엘라의 에레오리아에서는 평화회의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리비아위원회 위원장은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그이의 평도덕에 찬탄하는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쓰르비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의 애민정신과 위인적품격을 높이 찬양하는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은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리비아위원회 위원장은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그이의 평도덕에 찬탄하는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쓰르비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의 애민정신과 위인적품격을 높이 찬양하는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은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7월 초 즈음하여 리비아에서 회고모임이, 쓰르비아와 브라질에서는 장원회가, 베네수엘라의 에레오리아에서는 평화회의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리비아위원회 위원장은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그이의 평도덕에 찬탄하는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쓰르비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의 애민정신과 위인적품격을 높이 찬양하는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은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리비아위원회 위원장은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그이의 평도덕에 찬탄하는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쓰르비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의 애민정신과 위인적품격을 높이 찬양하는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은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41)

## 해 빛 같은 그 미소 그립 습 니 다

사회주의강국건설전시기관에 대한 우리의 참관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호실애로 이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헌생을 쟁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김세일 애국자 이십니다.》

장사의 안내를 받으며 호실에 들어서니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글말이 안겨왔다.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기 위하여 장군님께서 공양되고 농촌집으로 옮겼던 이어가신 현저지도의 길은 그 열매였었다.

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법에 양어와 축산, 파수업에서 자랄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철갑상어양어에 갖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헤치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의 희생적 항상을 위하여 철갑상어, 연어, 철갑 상어를 비롯한 고급어종들을 기르도록 하시고 세기되는 문제들도 풀이 주시면서 철갑상어양어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병도법에 의하여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손은 세계로》라는 뜻깊은 시대로도 옮겨 나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더욱 유복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배주셔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은 절정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고 하는 장사의 강동같은 이어가시는 참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호실에서 유려한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향도도출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신발발공장을 찾으면서 자신의 생각에는 힘입

목진순님만이 인민들이 좋아하는 향도도의 특산물인것만큼 신발이 뽕을 향도도출장소로 되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도 후손들에게 향도도에 오면 송장화를 사서 신겠다고 하시면서 신은 송장화였다.

이어 장사는 상업봉사기구를과로화정시정환기지를 찾고찾으며 우리 인민에게 배를어주시어 어머니장군님의 사랑은 끝이없다고 하면서 개인정년공헌유치장을 현지도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선수님의 영상사진을 걸어주시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관자들을 이끌었다.

우리의 귀재는 주제 100(2011)년 12월의 첫 일요일 개인정년공헌유치장을 찾으며 우리 인민들이 개인정년공헌유치장에 와서 유취시설들도 다고 희한하게 불상식을 한 야경도 구경하면서 정말 좋아한다는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니 자신의 마음도 즐겁고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성이 물려오는듯싶었다.

못 잊을 그날 한겨울의 맨뺨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취장소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꾼이 웃음을 띠고말씀하시어 장군님께서는 자신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그려져 있는 목소리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그려져 있는 목소리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날에 그 동물을 접수하기 위하여 현지에 간 일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다음호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문화건설을 현명하게 이끌 어주시는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장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 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과학연구기관을 찾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나라를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데 대하여 해설하시어 그 나라에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김을을 옮기는 우리의 눈앞에 주제 99(2010)년 4월 12일 김일성종합대학

전지도서관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전원과 함께 대에 보내주신 뜻깊은 전령 함께 안겨왔다.

《자기 땅에 밭을 불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순교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길잡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군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

2009. 12. 17

김정일

그날의 그 글말은 통남신의 아들 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파우명으로 깊이 새겨져 있었었다.

참관자들은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부분 사업을 지도하시어 신들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온 나라에 더 힘차게 메이리 치도록 하여주시는데 대하여서와 계속 파 보전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빛내어주시는 자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못 잊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사의 해설을 주의깊게 들은 참관자들은 다음호실에 들어갔다.

호실에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비상이 높이고 정적인 권위를 높이고 인부자주위애의 대의 활동을 우리 나라에 건설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과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칭송, 호미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호실에 들어서니 《위대한 혁명생애의 이천십일년》이라는 글말이 한눈에 안겨왔다.

주제 100(2011)년 1월 세로진행된 남포유리병공장(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과 현관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은 걸출하면 한다!》는 역적같은 신념을 안고 비장한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한 결과 첨단수준의 유리병공장을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자랑찬 성과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거머쥐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의 과학기술정책, 우리 나라 사회적진척공명의 위대한 승리라는 데에 대하여 고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우리가 후대에

계 물려줄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물질적유산은 대대손손 계몽에서 계몽으로 살아갈수 있는 주체화된 경제이라고 간곡히 고하시었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며 인민행렬치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시며 온몸을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

이렇듯 위대한분들이기에 주제 100(2011)년 10월에만도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40여개의 단위를 찾으신 인민사랑의 자욱을 뜨겁게 आरो세기시었다고 장사는 절절히 말씀하셨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피눈물을 뿌리며 그 나날을 보내는 자료들을 보며 밭길들을 옮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정녕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희생이었다는 한없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혁삭에는 이들을 남긴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젊은이를 붙여 드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을 걸으셨으며 시대의 역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그런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병도파라 이 땅에서 사회주의강국의 천만년미래를 펼쳐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품어안고 잊어내지 않을 힘에 충만되어있는 참관자들과 함께 다음호실로 향하였다.

글 오영심  
사진 본사기자 김광림

###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 대형비행기에 실려온 동물

주제 75(1986)년 4월 어느날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서우사에 들리시어는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서우를 보고 좋아하리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을 보면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었다.

사실 그 서우를 미나리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서 실어오기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꾼들의 의견은 분분하였었다. 가까운 곳에 기거하는 우리 무역관을 리용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나라에 오는 외국객을 리용하자는 사람도 있었

들은 뜻밖의 정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현실이 온 서우를 비행기에 실어오기 보다는 동물로 옮겨가지 못했던것이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금이 들들떠라도 다른 나라의 대형수송기로 실어오도록 해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막대한 비용은 없고, 인민들이 기뻐하면 그것이 이익이라고 뜨겁게 고하시었다.

이렇듯 인민을 위함이라고 그 무엇도 아낌없이 들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있어 중앙동물원은 인민의 웃음이 그 길을 모르는 행복의 띠인것으로 더욱 윤희의 전진길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태초한의 강추위도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그 위대한 헌신의 자욱은 평생합성가죽공장에 도통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어 우리 인민을 보람없이 내세워주시길 믿고 따름으로써 오시니다.》

주제 100(2011)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생합성가죽공장을 찾으신것이다.

이 공장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몸소 피뎠을 잡아주시고 이롭도

### 기 빼 하 신 사 연

이어서시였으며 사랑의 자욱도 새겨진 곳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조선봉건항쟁 500년의 역사가 우리 인민들에게 남겨놓은것이 한 걸음과 고구신화에 있다고, 우리 로동당시대에는 인민들에게 보람을 주신것을 우리 나라에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인민들을 남부리지 않게 잘살게 하시며 한평생을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로고에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생한장르로 향하시었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합성가죽생산설비와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깊은 관심속에 살펴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공장은 생산능력이 대단할뿐 아니라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있다고, 지난 기간 평생합성가죽공장을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인민들에게 집중을 신념과 생활열정을 안겨주었고 로고를 바쳐오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달들어 일을 많이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의 분에 넘친 치하에 공장일꾼들은 울음눈을 흘렸다.

공장이 지난 기간 어머니수령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조공이

#### 올림픽포가 전하는 이야기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하시며 단축을 금지 못하시었다.

이날 올림픽포를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인 인민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선물이 마련되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셨고 하시면서 인민군인들의 투쟁위훈을 없애지 평가해주셨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새로 개발된 올림픽승자를 찾은 것은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올림픽포를 자연경치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이곳에 찾아와 친화적경관을 이룬 올림픽포를 보게 된

분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절경을 이룬 땅속지 말끔이면 그것은 웅장 대자연의 별궁이나 피서지가 되며 평범한 인민들은 와서 구경할 업 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몸소 명승지를 발굴하도록 하시고 수많은 자금과 노력을 들여 향관도로와 편의봉사시설을 건설하고 경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흥례로 무상으로 선물하신다. 세상에 조선의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처럼 인민들을 하느님 내세우시는 위인은 없다.

오늘도 올림픽 승자의 경례한 목소리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전하며 메이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장정철

###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겨울명월구회의

총대 강하된 승자가 된다.

혁명의 이 불리 새겨안을수록 우리 눈앞에는 력사적인 겨울명월구회의에서 강도 일제의 항일전쟁을 선포하시던 배두산청년장군의 담대한 기상이 우뚝이 서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의 승리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장군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웅이다.》

겨울명월구회의가 진행될 때로부터 어느 8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 회회가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그 의의를 더욱 뚜렷이 새기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커다란 강화를 불러일으키는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뜻깊은 회로!

바로 여기에 겨울명월구회의가 우리 혁명에서 차지하는 력사적지위가 있다.

겨울명월구회의가 열릴 당시의 정세는 참으로 엄중하였다.

일제는 9.18사변을 일으키고 만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인민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일제에 살고있는 조선인민들과 조선혁명가들에 대한 침공이기도 하였다.

한편 일제는 《후방의 안전》을 부르짖으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투압의 도수를 더욱 높여갔다.

망국의 삶을 안고 초보적인 인간 생활도 누릴수 없게 된 조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농민, 청년학생 등 애국적인 인민들은 뜻깊은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러한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반일민족혁명

투쟁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조선된 정세의 요구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20(1931)년 12월 16일 열린 명월구회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모두다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떨쳐나설 때는 왔다고 하시면서 빈부여의 귀천, 당파와 종교를 가리지 말고 일체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무장투쟁에 총동원하시라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그리시어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겨울명월구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무장투쟁을 하되 어떤 형식으로 하겠는가. 정규전이나, 유격전이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이 운명적인 선택을 두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객관적조건들을 분석하시어 사력을 거둬야만 할 기초하여 유격전만이 조선혁명이 선택하여야 할 기본투쟁형식이라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규전이 불가능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격전만이 조선혁명의 운명적인 투쟁형식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고하시었다.

변화무쌍한 유격전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본투쟁형식이다. 국가가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정규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군사기술적으로나 항적으

로 멀뚱한 무력으로 강대한 일제침략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것만큼 변화무쌍한 유격전을 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무용한 일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들은 회의참가자들은 유격전이 가장 정확한 기본투쟁형식이라는 데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몇몇 회의참가자들은 당파와 당파, 비혁명과 같은 현대적인 정쟁에다가 장비를 수백만대군을 국가적투압이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명목으로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결심은 확고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려계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명백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것은 그저일 종대한 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유격전의 방침.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므로 세고 맞는 혁명투쟁을 건설하는 문제,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문제와 조국인민의 단일공통투쟁을 형성할데 대한 문제, 당조직사업과 투쟁사업을 강화하는데 대한 문제들이 명백한 방향을 가지고 정식화될수 있었다.

후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부터 회고하시어 이렇게 고하시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혁명투쟁사를 들추어보아도 우리 나라 혁명투쟁에 그대도 적용할수 있는 교훈을 찾을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기 머리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푸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국가적투압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력사적유예없이 전민의 조건에서 유격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괴할 길 없는 숙명적인 과제였다. 이 과제중에서 만민 우리가 정규군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그와의 배합으로 유격투쟁을 벌린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교조적으로 모방할수없었던 만민할수 없는 엄중한 실례를 당하였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를라에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론은 겨울명월구회의를 통하여 실천화되었으며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항일투쟁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투쟁은 우리의 생명이다! 투쟁이 무장투쟁!》

그날의 이 투쟁구호는 우리 인민사회의 힘과 투쟁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투쟁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투쟁적의지와 철학같은 신념의 발현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을 항일투쟁으로 합일케 불러일으킨 고무적이었다.

총대후에 혁명위원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병행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철의 진리가 있어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민족번영의 새시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전진기를 열어나올수 있었다.

오철진

### 혁명일화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혁명전통 조공당위원회에서 혁명일화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조공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자료들을 가지고 목보와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일꾼들 부러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품성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혁명일화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해설해주어 안부들을 위훈과 력적으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혁명일화 《로동자시인에게 하신 인사》에 대한 해설모임이 진행될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의주 화강물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어느 한 녀성로동자가 노래 《원수님!》의 가사를 쓴 로동자시인이라는것을 아시고 그를 향해 친히 머리숙여 인사를 하신 가슴뜨거운 사연은 만부

들속에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었다.

해설을 들은단 반부들은 한없이 감동하고 소말한 품성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무한히 존대하시며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펼쳐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백전백승의 길을 다지었다.

로동농민원 김봉일

###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41)

해 빛 같은 그 미소 그립 습 니 다

주제 75(1986)년 4월 어느날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서우사에 들리시어는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서우를 보고 좋아하리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을 보면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었다.

사실 그 서우를 미나리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서 실어오기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꾼들의 의견은 분분하였었다. 가까운 곳에 기거하는 우리 무역관을 리용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나라에 오는 외국객을 리용하자는 사람도 있었











# 황금해의 노래

## 4 면에서 계속

사나운 풍랑을 맞받아  
배는 또다시 나가는데  
대화가에서 울리는 성난 목소리  
-계속 고개를 부딪던가  
과고 얼음이 얼지 않겠어!  
배도 사람도 못 견져!  
귀항하라! 수신

-이건  
저 하나의 집으로 하는 모험이  
아닙니다  
우리 동무들과 안해들이 절기한  
목표를  
이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료를 승인해주십시오! 수신

-어느날 우리를 지켜보고계시는지  
있었느냐?  
몰라서?  
그의 굶주림같은 사마귀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응? 돌아  
서라!

-믿어주십시오  
우린 그냥 놀아가면  
보급자리에도 들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려도 평양... 가야 하지 않습  
니까?

더 멀리 먼바다로 나가며  
그들이 남긴 목소리  
일꾼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억대우같은 사나이들을 울리고야  
말았다

-이놈아, 네 아무런 잡나귀로서니  
이렇게도 말을 듣지 않겠나?  
내 거만두지 않겠나?  
-평양!  
평양이 정말 그립습니다  
평양생각만 하면 잠이 두워 다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 4. 파도치라 황금해여

어룡풍들 그물골이 물고기 싸움  
리고  
나는 온 마음 다 기울여  
구질구질 노래를 곁들여오니  
싸움필수 꼭 지켜지고 넘어만지는  
우리에 자랑받은 노래의 바다  
오, 《동해명승》을 울리는 바다여  
오늘은 시해의 자랑도 불어보자  
연안보물을 훔고 길게는  
시해의 황금과도우를 달리노니  
홍어, 꿩어, 도미  
해삼이며 생굴, 황새우와 소라  
동조개, 대학과 바스락개...  
우리 나라 고래어족은 어디서 더  
많이 나고  
유명한 조구는 어느쪽에 더 많던

## 꼭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눈물진 눈으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사무친 그리를 배고통소리에 담아  
흘리면  
젊은 선장의 그 진정  
끝에 달리는 어룡풍들의 평양길은  
한생의 전부를 얻은 위훈의 향로

물고기산 짙아놓고 다시 만나자는  
우리 원수님의 믿음의 약속  
독송처럼 안고 살아  
평양길은  
오직 불타는 총정의 한마음으로  
만선의 소식과 함께 가는 길

그때처럼 있었다  
크지 않은 성과를 치하해주시며  
원수님 보내주신 감사  
뜨거운 온정의 술을 받아내고  
눈물속에 새우면 못 잊을 밤이

어제 그것이 한평 살아떠나  
인어인 보아도 가슴후터워지는  
사랑의 바다  
믿음의 바다

-원수님께서 우리 어룡풍들을  
당중양외의실 주인이라 하셨는데  
물고기대장을 거머 이득하고  
우리 원수님께  
멋잇이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만선의 귀항길은  
그러온 정양으로 가는 길  
원수님의 바램들은 그의 품으로  
총정의 보고를 안고 가나니

황금해포구가 어디인가 하였더니  
원수님 기다리시는 당중양뜨락이  
있구나  
푸른 바다어장을 누비나갈수록  
아, 그러온 정양 아버지 계시는  
흙이여  
가리라 바다의 아들딸들  
은 나라의 기쁨, 만선의 자랑안고

누구나 근황올리며  
손에 들고 놓지 못하는  
꽃게는 금값이요  
송어는 은값이라  
세계시장에선 금권을 아끼지 않는  
보물을  
내 나라 시해가 즐기고있어요  
부르라 양식장엔 늘씬늘씬 보랏빛  
물결  
손잡고면 청정  
다시마, 참이덕이 감겨어붙고  
포구마름에 가득찬 바다나물항기  
풍금포 금모래우연 이세로운 어물  
주단  
금신포라 첫갈가공공장에선  
사람들의 의성과 주부들의 요구에

## 꽃피어나는 우리의 첫갈분화 제일이야

꽃 잊을 그날  
능금도는 자기의 불경치를 떨쳤더라  
파도는 밭밭에 여러쌍치고  
바다는 그뒤에서  
취임없이 잔잔도를 일러올리는데  
원수님은 절으셨어라  
갑개미 춤을 추는 기쁨을 따라

김용수축  
가슴에 사무쳐오는 생각  
이처럼 오늘을 내다보고  
홀륭한 며친을 마린해주신  
어머이장군님 생각

은물의 대형장기리페트르베야와  
대불어  
새끼이 펼쳐지고  
소금밭이 열여지고  
바다를 가르질피 아카시아나무들  
이 날여서  
꽃밭들이 분방타며 날아들고...

인민의 제무를 마음껏 즐겨가라고  
바다제로의 대포를 닦아  
버럭조차도 보베로 맞대어주신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소원  
그대로 여기 꽃피우리라

아, 보아주신다 장군님 마음으로  
매하지, 떨치지, 카나리  
조개조개 글썽  
가치각색 첫갈분화...  
떨어보니 제부를 적시는 이 황기!  
잘도 익었다  
보잇한 보랏빛이 감도는 건영이  
그것 날엔 귀머이어서  
무지말만 먹었다는 배워  
수령님제신 인민의 발상에 놓여주  
시며  
어촌길을 얼마나 길으셨던가  
자신께서도 건영이것을 편하뵈리로  
말게 드시었다 하였거니

어서빨리 돌아주고싶습니다  
은 나라 물고기산장, 첫갈분화제이  
한시바며 보고싶습니다  
볼좋은 생선만이 아니라  
첫갈분화 제정날은 집집의 부엌들

-상원집에 주원이 놓여주면  
인민들도 좋아하고  
관려원들도 좋아하겠소  
그런데 어떤 주부들에게는  
첫갈분화 제 커보이지 않겠나?  
수령님의 그 사랑 그 뜻으로  
동서적자원을 높이고 더 높이시며  
국방위원의 명령을 하달하시고  
바다로 흘러드는 한줄기 강물에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장군님

바다가양식은  
금을 캐는것보다 낫다고 하신  
어머이장군님의 건국한 가르치심  
대로  
해마다 넓혀온 행복의 미진  
동시해 양식장마다

## 따라 풍사를 잘할수 있습니다

아, 사랑의 첫갈분화  
수도의 거리거리에 날아나는 첫갈  
꽃피어나는 우리의 첫갈분화  
대불어  
새월님이 전해지리라  
바다보다 더 넓은 어머이사랑의  
이야기...

인민의 금수강산을 열려안은 바다여  
너는 정녕 우리 원수님 품에 안겨  
로동당의 혁명실록을 뜨겁게 아로  
새기며  
사계절 만물의 푸른 트락으로  
술렁이리라

× ×  
동해여! 시해여! 푸른 바다여  
꽃만한 네 가슴에 품어 지퍼우는  
바다를 한일, 조개 하나, 물고기  
한마리...  
마음속에 소중한 안아보노라  
아, 내 나라의 바다는  
어이 이리도 보배롭고 아름다운가

가슴메잇이 울려오누나  
수령님 품소 하달하셨던  
주석명령 제7호 세부세부 조항을  
가치각색 첫갈분화...  
떨어보니 제부를 적시는 이 황기!  
잘도 익었다  
보잇한 보랏빛이 감도는 건영이  
그것 날엔 귀머이어서  
무지말만 먹었다는 배워  
수령님제신 인민의 발상에 놓여주  
시며  
어촌길을 얼마나 길으셨던가  
자신께서도 건영이것을 편하뵈리로  
말게 드시었다 하였거니

어떤 물고기는 어떤 방법으로도만 잡  
으라  
강과 바다를 오르내리는  
물고기들의 길을 만들어놓으라  
한조항한조항 명령문에 막아넣으  
시며  
그토록 마음쓰신 어머이수령님

뜨거운 한줄기 바다를 안으시고  
수령님 정성다해 가꾸신 조국의 바다  
전후의 그 어려운 날에도  
술렁이는 푸른 이빨에 뿌리신  
수신만으리의 다시마도  
내 나라 바다양식의 첫 제지 되었  
거니

수령님의 그 사랑 그 뜻으로  
동서적자원을 높이고 더 높이시며  
국방위원의 명령을 하달하시고  
바다로 흘러드는 한줄기 강물에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장군님

바다가양식은  
금을 캐는것보다 낫다고 하신  
어머이장군님의 건국한 가르치심  
대로  
해마다 넓혀온 행복의 미진  
동시해 양식장마다

## 늘씬늘씬 바다나를 갖가지 풍년 조개

어찌 바다뿐이라  
방우에도 행복의 불갑기를 일으키  
시며  
《해삼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  
계로》  
장군님 인제주신 불멸할 애국유산

어는가 사람들이여  
은 나라가 황금해-  
오늘의 바다를 안고 살리일 때  
우리 원수님  
국무위원의 위원장 명명 조항마다  
부흥할 인민의 패업을 담아주시며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때우게하셨는지

영룡포양곡업사업소를 찾으셨던 날  
앞에서 카나온지 얼마 안되는  
새끼물고기 손으로 정히 퍼드시고  
원수님 안아보신것은  
더 좋아질 애국가와도 같은  
수령님, 장군님의 사랑의 당부  
원수님의 절절한 심장의 호소

새끼가 사람들이여  
집세원들의 불갑은 애국!  
우리 수령님처럼  
우리 원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조국의 모든것을!

산더미로 퍼올려 황금해 맞이러나  
물고기를 잡는 어룡풍들이  
물고기를 놓아주고  
매일의 바다를 풍성하게 가꿔가나니  
만선의 주인공들은 이 바다의  
실공군을  
애국증은 바다에서도!

오로라 바다여이 풍을시구  
옥실대는 현이들 그물우려 혼돈다  
가는 곳마다 금물결  
달디단 강물에는 물고기떼 날아난다  
가슴마다 술렁이는 우리의 황금해는  
수신만으리의 다시마도  
내 나라 바다양식의 첫 제지 되었  
거니

수령님의 그 사랑 그 뜻으로  
동서적자원을 높이고 더 높이시며  
국방위원의 명령을 하달하시고  
바다로 흘러드는 한줄기 강물에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장군님

바다가양식은  
금을 캐는것보다 낫다고 하신  
어머이장군님의 건국한 가르치심  
대로  
해마다 넓혀온 행복의 미진  
동시해 양식장마다

## 바다보다 치밀해- 풍이 더 심해 누나

하복정엔 늘씬늘씬 물고기바다  
집입창고에도 가공장에도 평등저  
장고에도  
넉넉웃 쌓이는 물고기 물고기  
어그야- 이 사랑  
우리의 이세어정!

기쁨에 기쁨을 더해주는가  
하늘에선 정성껏 복을내 내리니  
눈으로는 《단풍》에설 최결정에서  
안아보는 기쁨도 감정의 최결정

정녕 우리 원수님  
온넛으로 가꾸시는  
조선의 바다  
우리 황금해  
시작은 어데고 끝은 어디나

열두달 하루같이 헌신속에 사시기도  
물고기대장소식 들으시면  
너무 기뻐 잠 못 이루시는 어머이  
물고기를 받아내고  
형복에 실패하는 모슴을  
사건속에 보고 또 보시며  
한자한자 쓰신 글밭 하늘가득 퍼  
올라라

《정말 이번 맛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볼줄래요는  
행복에 도착되보려고  
힘들어 웃으며 무명속에 사는  
것 같소》

아, 황금해  
인민을 위한 사랑에 다함이 없고  
바치는 헌신에 집합이 없는  
어머이정정이 펼쳐지는 만복의 바다  
어디서나 술렁이어나 우리의 황금해  
이름없는 산간마을 작은 삼정대  
에도  
어릴피구 푸기는 사회주의바다항기  
평양의 한복판 대동강수산식품식당  
에도  
결정 뛰는 최귀한 물고기들...

한가슴에 안아보니 눈물짓는 이 마음  
뜨겁게 어려와라 우리 원수님  
늘 품고 다니시는 해복에 웃은 수취  
물없는 사랑 불길치는  
한갈피 또 한갈피...

오대양이 다 마른대도 헤아릴길  
없는  
우리의 원수님의 넘치는 사랑  
신념을 배워주고 가시는 걸음걸음  
어디서나 만복의 노래소리 울리고

## 어디서나 기쁨의 파도 일렁이어나

바다에로 대양에로  
한초한초에 세월을 당겨세우며  
더 좋은 미래에로  
더 힘껏 날으는 우리의 조국

지력경쟁의 마지로  
물없이 만들어내는  
《황금해》로고기배물  
《문명》로풍사선물  
내 나라 바다를 뒤덮어가거니

세계는 보고있어라  
우리 바다를 물리싸고  
집중으로 치고친 풍세의 그물들  
그 너털한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꽃밭들이 불꽃불꽃 쳐들리는것을

어머이신 제국주의  
사촌파의 3대전학자선을 떠들어대  
라지  
그 감지도 않은것을  
찾고갈 나야는 우리에게  
황금산, 황금밭, 황금해가 있다

우리의 3대전학자선-인민의 제부  
구 누구도 무엇으로도 못 짓겠어!  
원수님이 제아무리 밭밭을 해도  
내 조국은 세계에 빛나기만 하여라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 승리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 부  
흥하리라  
오, 내 나라의 물고기대장  
이것이 흥해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바다에는 리정표가 없지만  
사력으로 추추지는 우리의 심정엔  
한해일강국의 리정표가 있다  
바다에는 문제를 탐수 없지만  
우리의 바다엔 황금해의 문제가  
있습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세상에 부럽없어!》

《바다 만복가》의 흥겨운 가락에  
따라다니는  
사회주의대가정의 맑은 웃음이여  
너는 우리 수령님들의 사랑의  
한평생  
우리 원수님의 열사부부의 낮과 밤이  
인민의 집집에 꽃피우는 찬란복

오, 황금해! 황금해!  
나는 정녕 사회주의 내 나라에만  
있는  
인민 단세의 만경창해  
수령님을 넘넘을 집어집어 꽃피우는  
김정은원수님의 역년보물고

아, 해가 솟아  
금빛에 물든 바다  
관외로이 내내저으며 갈매기 난다  
인민을 만들어 강대한 나라  
누리에 빛나는 민영의 시대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만드세!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 승리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 부  
흥하리라  
오, 내 나라의 물고기대장  
이것이 흥해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잠업부문 다수확자들이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었다**

잠업부문 다수확자들이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었다. 사강도, 남포시, 황해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각시 잠업부문 근로자들은 공화국청년 70살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지역시장의 기지능이 증진될수있음을 힘있게 벌여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로력적성과 이룩하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에 떠날 때를 맞고있는 잠업부문 다수확자들이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과 다할 없는 정으로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애양궁전을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성홀에서 맞이선 그들은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풍부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게 상가인사를 드렸다. 잠업부문 다수확자들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과 만경대고향길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한평생 빛내이신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결한 인생관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잠업부문 다수확자들은 혁명

전통요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참된비 내리는 농장길, 마을길을 걸으셨으며 사회주의 의로와농촌건설의 세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들여다보았다. 또한 그들은 김정수령님께서 공장과 과학기술전당 등을 참관하고 국립연극극장과 평양교과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문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다. 잠업부문 다수확자들은 더 많은 누에고치생산으로 나라의 정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15일 평양을 떠나갔다.

**잊지 못할 사랑의 당부**

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습시용성에서 새로운 전란을 일으킬수 있는 혼돈한 물질 기술적도태를 마련해놓을수 있는것은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모든것을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도 부응하는 자세로 사상을 높여 발전에 이룩하게 투쟁한데 있다고, 이 자랑한 성라는 자기 땅에 맡을 불이고 눈은 세계를 볼때 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새로 꾸러진 밀밭장정에 격찬한 영도의 주체로 남기신 격려의 글은 100(2011)년 9월 8일이었다. 직장의 여러 생산공정들

서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들은 우리의 가슴을 뚫어놓았다. 사실 닭고기밀밭을 많이 만들어 평양시민들에게 팔아주도록 하여야 한다시며 물소 밀밭직장 건설을 허가하시고 군인건설자금을 보내주시고도 건설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날 이흥시밀밭봉사대에 오드 둘러서 손수 밀밭도 만져보시며 마르마르하게 밀린 밀밭을 인민들에게 봉사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밀밭봉사대원들이 거머내는 약속을 봉사하면 우리 인민들이 더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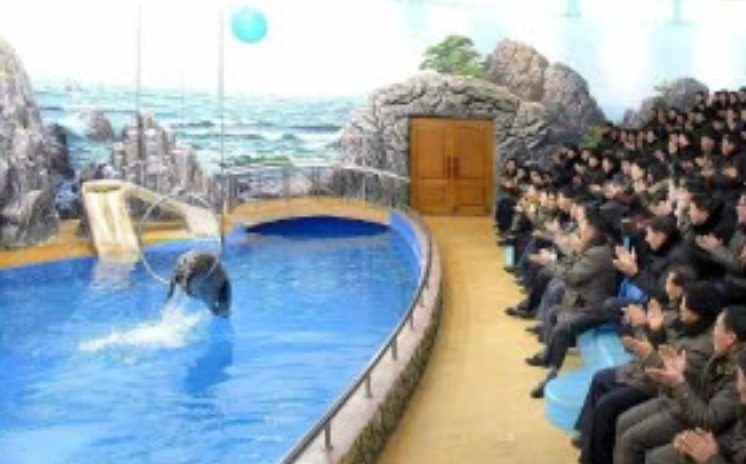
**그 은정 길이 전하는 래탄샘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말들이 잘수하는데서 불이 중요하면 우리 나라 불은 사람의 건강에 좋기로 세상에서 소문이 났습다.》 래탄군 삼봉리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인기가 높기로 널리 알려진 래탄샘물이 있다. 먼 옛날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솟아나오는 샘물, 이 고장사람들도 이 물을 마시면 병을 모르고 오래 산다고 믿고있으면서 어떻게 되어 건강증진을 좋게 하는 것 같다고 믿고있었다. 신기한 샘물의 이 비밀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속에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신덕샘물같은 좋은 샘물이 도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함경북도 경성지방과 황해남도 래탄군에도 좋은 샘물이 있다고 하시며 래탄샘물을 가지고 고국 내민생활을 높이고도 좋으니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어머이수령님의 뜻을 받드시

고 래탄샘물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이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에 받들려 수백년 묵은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자라났고있는 삼봉리의 수림속 여러곳에서 샘물을 찾아내게 되었으며 그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래탄샘물이 소나무계 된것은 다른 샘물에는 극히 적게 들어있거나 찾아보기 힘든 원소들을 함유하고있기때문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래탄샘물은 물소, 브롬, 셀렌, 아연, 동을 비롯하여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좋은 10여가지 원소가 적절하게 들어있다. 이 샘물만 마셔도 사람의 몸에 필요한 불소함량을 충족시킬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불소가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이 샘물은 오래도록 그 맛이 유지되고 김치를 담그거나 음식을 만들때 사용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사기자 강철웅**

**물고기자원보호증식에 좋은 수직 틸식 물고기 길**

자료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인제가 건설된 강하천에서 오름성물고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수직 틸식물고기길을 건설하고있다. 강오름성물고기들은 대체로 바다에서 자라 얻지가 되면 알을 풀어 위하여 강으로 올라오는 데 강하천들에 인제가 건설되어 있는 경우 그것들을 이동성로 있게 하여 강을 거슬러올라갈수 있게 하여가져 물고기길을 내는 방법을 받아들여있으며 그가운데서 인제식물고기길이 널리 적용되었다. 인제식물고기길은 비탈진 물길에 일정한 간격으로 인제식의 물막이벽을 쌓아놓는 형식의 물고기길이다. 이 물고기길은 강물이 간간히 넘어서 있으면 강물이 쌓여 물막이벽의 아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자주 강물을 퍼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가을철에 물고기길의 수위가 심



잠업부문 다수확자들 중앙동물원 참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스웨리에국왕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2일 스웨리에 왕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께를 구스라 프16세 국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리원국특명전권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국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전하여드림을 부탁하였다.**

국왕은 조선반도정세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 깃들고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비탈선방민주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비탈선방민주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되었다.

**금성시료공장 지배인 구 광 호**



# 만민의 칭송을 받으시는 희세의 정치가

세계 수많은 나라 정세,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진보적인인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김집총한 지도자', '《오뚜기》는 위대한 정치가', '《고집한 인물과 덕망으로 세계를 움직이신 대성인》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끝없이 그리워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 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사상과 명도로 인류사주위업,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정치가, 희세의 정치가이시다.

지난 20세기 말엽은 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대전지진이 일어나고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졌던 시기였다. 이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역사의 방황자를 억세게 붙여잡으시고 인류사주위업을 지기의 궤도로 확고히 올려세우시였다.

당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파괴되고 반사회주의광풍이 세차게 불어왔다. 사회주의를 구원해야 할 시대적과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호소만 하였지 과학적인 사상을 내세우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드리고 인류를 사회주의의 미래로 돌리자게 이끌어가기위한 다른 어떤 다른 최고의 천출유인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은 하늘을 찌를 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가 일시적으로 가시어선 국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쟁의 철리를 밝히시어 사회주의를 일꾼인 권투들에게 준엄한 질수를 내리시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인류에게 심취와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사회주의의 운명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발전과 전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사회주의의 배신자들의 정치는 만민에게 드러나고 사회주의를 망상해보려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불거붙어 되었다.

유럽의 한 정당지도자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사회주의가 위기를 겪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그 누가 감히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재건시킬데 대한 한호박 씨앗이 있었는가.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단신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상가론을 내놓으시고 실천에 구현하시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

오늘 인류사주위업, 사회주의의 위업을 부당치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며 지기의 궤도를 따라 꽃피어 전진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공로화하신 사회주의 사상가론이 함으로 정당하며 과학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하기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정당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건설사상과 이론은 그야말로 백과전서라고 할정도로 격찬하며 그것을 사상적무기로 삼고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의 평화보장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제국주의는 평화의 원수이다. 침략과 학살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지구상에는 총포성이 그칠 일이 있을수 없다. 평화로운 세계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평화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는 항일의

# 《김정일동지께서는 날씨를 길들이신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로씨야방문의 길에 오르신것은 2001년에 로씨야인물 《프롤레타리아 프라우다》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날씨를 길들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 하얀색 구내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일도 가리볼수 없었다. 그런데 열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하얀의 하늘이 갑자기 맑게 개이였다. 7월의 밝은 태양이 찬연한 빛을 뿌

리며 열차를 맞이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이런 현상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왜하면 6일이 지나서 노보시브르스크에서 두번째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기때문이다. 열차가 도착하기 10분전까지 도시상공에서는 우뢰가 무섭게 울고 번개가 쳤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끼어 하얀의 하늘이 갑자기 맑게 개이였다. 7월의 밝은 태양이 찬연한 빛을 뿌

# 《세상에 돌도 없는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란크스-베르데르그의 여미 대상을 돌아보실 때에도 진실같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당시 대륙까지 떠돌아다니던 비가 장군님께서 왔는데

# 《우리의 사원에 태양이 오셨습니까》

2002년 로씨야의 원동지역발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하바롭스크시에 있는 로씨야 정교회에서 열린 김정은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한 추억을 통하여 사회를 단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한 추억이 사회단합의 기초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12일 오후 7시 55분 평壤시에서 열린 김정은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한 추억을 통하여 사회를 단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 번덕은 갑자기 멎었다. 이미 지어진사제도 씨비리땅에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환영하는것 같았다.》

실존은 계속되었다고 하면서 이 지역 인민들은 한주일, 열흘씩 비가 내리면 광활한 씨비리땅에 햇빛을 안고 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천가를 다스리는 진실적인인물로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의 밭사위가 어딘 씨비리는 영원히 태양의빛을 전례받았다고 하였다.

《당신께서 천가를 다스린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직접 목격하니 정말 세상에 돌도 없는 위인이십니다.》

단순한 자연의 조화라고만 볼수 없는 신비한 현실앞에 당시 란크스-베르데르그

에 넘쳐 그이께서 사원을 찾으신 시간에 너무나 환영의 흥을 울리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정에 거역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 사원에 태양이 오셨습니까. 태양이 오셨는데 좋은 울리는것은 응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를 단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오세도록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추하는것은 로씨야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 커다란 사본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원칙적인 견지에서 한꺼번에 미국합선을 용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해당한 조지들을 취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2020년에 진수 75歳을 경

원외 위원장이 최근 후배수역에 군함을 과전하여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려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그는 원칙적인 견지에서 한꺼번에 미국합선을 용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해당한 조지들을 취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13일 정부기관과 은행, 학교, 기업체들에 대한 폭탄공격위협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전지우편과 전화를 통해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 나라의 분별과 군사적긴장을 피하는 미국을 비난

이탈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케메베이가 12일 제네바에서 열린인도의 분별을 피하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난 2년동안 이란을 반대하여 실시한 모든 조치 특히 전면적인 경제는 분별과 소요를 조장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폭탄공격위협사건 또 발생

# 군사적대결을 고취하는 구래의연한 처사

남조선군부가 북남관계개선 흐름에 역행하며 군사적대결에 돌입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남조선 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남조선군부는 서울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려놓았다.

# 당국의 군사비 증액을 반대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10일 당국의 군사비증액을 반대하는 논쟁을 발표하였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회》가 8일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19년 군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역사의 갈피에서 나토지휘권을 둘러싼 뿌리깊은 모순

얼마전 프랑스대통령은 미국과 기타 나라들로부터 유럽인들을 보호할 목적인 유럽군장비를 마련하는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하였던 사실을 상기시켜주고있다.

1966년 3월 7일 미국대통령 존슨은 프랑스대통령 드골이 보내온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아주 예외적이 적어진 팔각한 편지였지만 존슨은 이연하게 만물에는 충실했다.

드골은 편지에 《프랑스는 자기의 전쟁에 대한 주권행사권리를 충분히 회복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군대를 미이상 나토의 지휘하에 두지 않음과 나토와 그 성원국의 군대를 프랑스식정병으로 내보내자는것 즉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한다는 뜻이었다.

나토성원국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프랑스의 나토탈퇴는 하루아침에 일어났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되기 전에 드골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 나토지휘권을 나누어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제의하였다. 그러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이것은 드골은 화어금 나토탈퇴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해준 계기로 되었다.

#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랑치범죄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 일본언론계가 폭로한 지멜리는 과거죄악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일본언론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잡지, 용매,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역과 고역장소에서 강제노동과 생노예살이를 강요한 극악한 범죄이다. 일제의 가장스러운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에도 광범히 보도하였다.